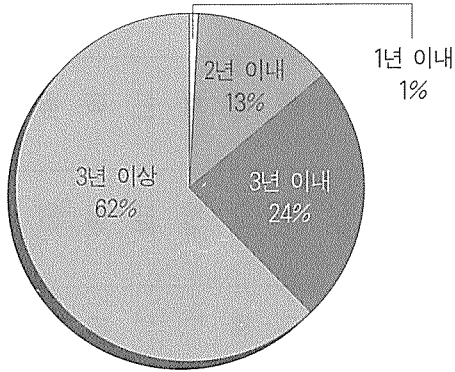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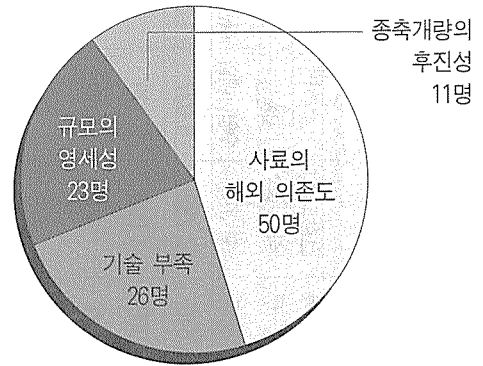


축산관련 대학교수 100인이 보는 한국축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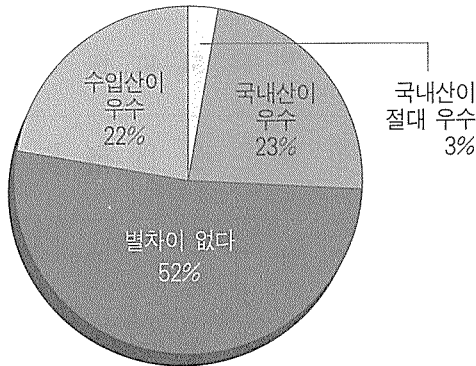
1) IMF 이후 축산위기 언제까지 지속될 것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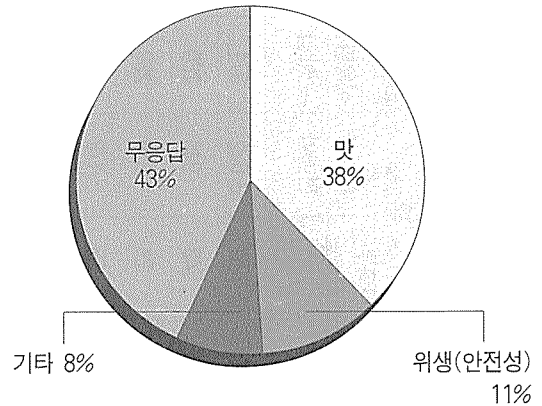
2) 한국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중복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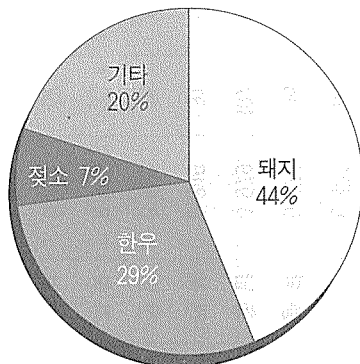
3) 국산과 수입 축산물을 비교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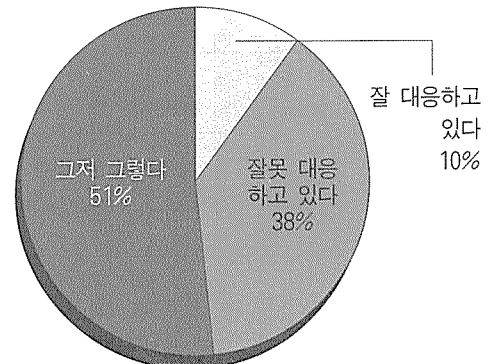
4)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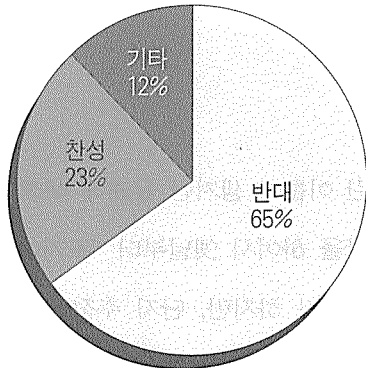
5) 외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축종



6) IMF 이후 축산정책에 대한 평가



7) 축협을 농협에 통합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공 : 축산 28명, 축산가공 16명, 축산경영 10명, 사료영양 17명, 수의 14명, 낙농 7명, 기타 8명

(발췌 : 축산신문 98. 9. 29)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색은?

일본의 하교로모푸즈사는 '색으로 맛보자, 올해의 샐러드'라는 테마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이 캠페인 응모자 중 20~50대 주부 400명에 대해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맛있는 색은 어떤 색이냐는 질문에 '녹색'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적색', 3위가 '황색', 이하 오렌지, 크림, 청색, 핑크, 백색, 갈색, 옅은 갈색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녹색'은 신선한 색(66명), 식욕을 돋구는 색(28명), 야채를 연상시키는 색,

'적색'은 식욕을 돋구는 색(41명), 예쁜 색

(16명), 마음이 따뜻해지는 색

'황색'은 따스한 색, 식욕을 돋구는 색이라고 답했다.

세계양돈 경기 향후 2년 최악의 불황 예측

세계의 양돈산업이 향후 2년 동안 최악의 불황기를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 P&C 연구소 정영철 소장은 '향후 2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전형적인 피그사이클에 의한 불황주기 동시 도래와 아시아의 불경기로 소비 위축이 겹쳐 돈육의 수급 불균형으로 사상 최악의 불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국내 양돈산업이 생존하자면 IMF 이전에 비해 생산비가 20%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최소한 순종돈의 경우 모돈 두당 출하두수가 20두, 비육돈 농장의 경우 22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종돈의 사용을 등하시 한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는데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충고했다.

저가의 쇠고기와 수입돈육에 대응하여 국내 양돈산업이 유지되자면 삼겹살 위주의 왜곡된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규합하거나 몇 개의 양돈단지를 묶어서 지역별로 품질을 보장하는 중저가의 브랜드 돈육을 생산,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